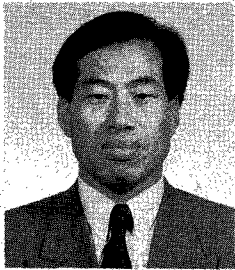


특수란 시장 소비 감소로 위축이 심했다.



한 재 권
강남농장 대표

채린업은 물론 양계업이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의 여파로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다시 회복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양계업을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시점을 회고해 보면 당장 채란업이 몰락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어수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군업자들은 리스자금을 의한 압박으로 자금상환을 걱정하게 되었고 자금이 부족했던 소규모 농가들은 닭들을 굶기는가 하면 농장을 버리고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그나마 현금 결제로 방향을 돌리던 계란값과 사료값도 외국 자본이 다시 유입되면서 과거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 유통구조의 불합리만을 남고 있는 실정이다.

1. 수급불균형 다운쪽만 늘어나

IMF체제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료가격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1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큰 폭 하락하긴 하였지만 이로인한 생산비 부담으로 중추 육성보다는 강제환우로 연명해 가는 농가들이 많았다.

이는 당연히 질병발생을 부추겼고 다행히 가금티푸스 등 질병을 모면한 농가들은 수익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가 현격히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격을 위주로 생산성이 낮은 닭을 연장 사육하고 환우물량이 늘다보니 질병이 증가하고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히 투약 증가를 발생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계란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겼다.

최근들면서 때아닌 계란빵의 열풍과 지난 6월 200만수 이상의 병아리 감산 작업으로 난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소비가 큰폭으로 줄어들면서 채란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특히 일반란 보다 특수란으로 판매되는 상품란의 시장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들은 주머니가 가볍다 보니 비싼 것보다는 싼 계란을 찾았고 이것이 국내 계란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유통분야에서의 구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DC폭만 커졌는데 요즘처럼 계란등급간의 격차가 거의 없고 계란의 체화가 거의 없을 때는 DC폭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 달만 해도 다운이 20원 이상까지 하는 불합리함이 계속 이어져 왔다. 경제위기는 상인들까지 구조조정 바람을 타면서 상인들의 부도가 많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여파는 계란을 거래하던 생산자들까지 함께 피해를 가져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다보니 규모의 경영에서 내실위주의 경영으로 사고가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를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다.

이는 앞으로 채란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철저한 경영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농장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교훈을 심어준 것이다.

2. 계란 소비홍보 생산자들이 참여를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해야 할 일은 농장의 청정관리 즉 올인올아웃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가 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 향상부터 계란유통 개선까지
2000년을 향한 기반 조성의 해로
만들어 보자.

질병 예방을 위해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또한 환우를 시키는 것은 10원을 얻기위해 100원을 잃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우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기에 노계를 도태시켜야함은 물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심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계란소비 홍보가 우리의 몫인 것이다.

지난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양계협회에서 실시한 지하철 광고는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하고 있다.

즉, 자조금을 조성하여 계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 물론 사료, 종계약품, 유통 업체들이 함께 협력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가 없다. 우리 채란업계는 올해를 생산성 향상부터 계란유통 개선까지 2000년을 향한 기반 조성의 해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